패션은 섬유의 존재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다

패션(여기서는 특히 어패럴)에 대하여 생각할 경우, 섬유의 존재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의 역사를 살펴보면 재미가 있다.

확실하게 패션에 섬유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인데, 섬유의 발전에는 패션이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자의 관계에는 ①패션의 경향의 변화에 따른 섬유 소재가 개발되어 기용되는 경우와 ②새로운 섬유소재가 개발됨에 따라서 새로운 패션을 생기게 하는 경우의 2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①의 경우 페미닌조의 실루엣이 패션의 주류일 때는 드레이프성이 풍부한 엘레강스한 감각의 견이나, 실크라이크한 신타섬을 중심으로 한 장섬유 직물 (필라멘트직물)이 인기소재로써 채용되어 장섬유 직물 붐이 일고 있다.

페미닌조의 다음으로 캐주얼조의 패션의 물결이 오면 면이나 마 등의 천연섬유, 합성섬유 방적사로 제작한 단섬유 직물(방적사 직물)이 주류가 된다. 드레시한 것은 필라멘트직물, 캐주얼한 것은 단섬유 방적사 직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다.

②의 경우 옛날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chief designer인 마크 보안이 "나 다운 소재를 만났을 때, 더욱 더 창작 의욕이 생긴다"고 말한 것을 떠올리게 된다. 참으로 인상적인 말이다. 보통은 디자인이 먼저 있고 디자인의 이미지에 맞는 소재를 그들로부터 선택하여 제작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참으로 아름다운 소재, 흐르는 듯한 드레이프를 나타내는 소재, 참으로 새로운 감성을 갖는 소재라면 디자이너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마크 보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패럴(의복)의 제조는 일종의 부품 조립작업이지만 자동차 등의 제조와는 대단히 다르다. 자동차의 경우, 형을 만드는 주된 소재는 철판으로서 외장의 색상 부여는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행해지고 소재인 철판 그것의 감성은 그다지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어패럴인 경우 주된 소재는 텍스타일(직물, 편물)로서 소재인 텍스타일 그 자체의 감성적 가치(색상·무늬, 광택, 태, 드레이프성 등)가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특히 높다.

다가올 다음 시즌의 패션 경향에 대응해야 하고 견과 같은 외관, 볼륨감, 촉감을 가진 실크라이크한 폴리에스터르, 복숭아 껍질과 같이 잔털이 풍부한 상쾌한 촉감의 극세섬유, 모직물과 같은 두툼하고 풍성한 볼륨감, 드레이프성, 반발성을 갖는 방적사조의 복합가공사, 레이온과 같은 보슬보슬한 드라이한 반발성, 드레이프성을 갖는 섬유 등 새로운 패션소재가 점차 개발되고 있다. 또 새로움에 대한 과감한 시도로 면, 마, 견, 양모 등의 천연섬유의 개질, 나일론, 폴리에스터, 아크릴 등의 합성섬유 개질, 또 천연섬유와 합성섬유의 장점을 합하여 상승효과를 노린 복합섬유라든가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스포츠웨어와 같은 복종에서 새로운 감성소재를 살려 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여기 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